한국명상지도자協, 4인 대표 체제 재편

5월 12일, 공동대표 취임 발표
마가·정혜 스님, 김열권·안희영
명상 교육 표준화·저변 확대
6월 28일, 선명상 주제 포럼
9월 2일부터 명상아카데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5월 1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인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대표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 스님, 안희영 한국 MBSR마음챙김연구소장(왼쪽부터).

불교계 31개 명상단체가 함께하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전문성과 대중화를 통한 한국불교 명상문화 선도와 교육 표준화 확립을 발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하 협회)는 5월 1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인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대표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 스님,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 안희영 한국MBSR마음챙김연구소장으로 3월 23일 진행된 제122차 운영회의서 선출됐다.

협회는 이번 체제 개편을 통해 각 대표가 가진 고유의 전문 영역을 협회 운영과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명상 교육의 표준화와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대표 마가 스님은 "한국사회에 산재한 어려운 점들이 명상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 스님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명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겠다.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김열권 공동대표는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명상 교육 체계화"를 강조했으며 안희영 공동대표는 "공동대표들이 서로 상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한국명상문화의 표준을 만드는 게 바람"이라며 "이 시대 고통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는 명상지도자포럼은 6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한국명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명상 보급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제20차 명상아카데미 2급, 1급 자격과정'도 개설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측은 "앞으로 자격증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각급 기관 및 대중을 위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한국불교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협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종단 종책과 협회의 인프라가 잘 콜라보된다면 선명상 보급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가 스님은 "앞으로 협회도 미래본부와 함께 여러 시너지 있는 사업을 추진해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혜정 스님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스님, 선명상이 무엇인지 물어도 될까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선명상이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협회도 국민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을 종단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강일출 할머니, 빛으로 돌아오소서"

조계종 사노위, 서울 조계사서 49재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고 강일출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와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은 5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강일출 할머니의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49재는 특히 강 할머니가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거주했던 '마지막 할머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했다.

192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강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만주 지역으로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었다. 해방 후에도 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삶을 이어가다 뒤늦게 고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했다. 이후 강 할머니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집에 머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00년 도쿄여성국제전범 법정 증언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쟁의 참상과 인권 유린의 실상을 당당히 증언해 왔다. 할머니는 생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간절히 바랐으나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향년 98세로 눈을 감았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할머니는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업장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보살의 행원'을 몸소 보여줬다"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숙제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공불련 회장)은 할머니의 삶과 증언, 용기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손자 강내록 씨는 나눔의집 직원들과 요양보호사들, 시민사회 등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경기북부 포교 거점 '봉선사 전법회관' 개원

5월 12일, 7년 대작불사 결실
93억 투입된 다목적 포교 시설
복지기금 3억7900만원 약정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5월 12일 지역 포교의 새로운 전당이 될 전법회관을 개원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지역 포교의 새로운 전당이 될 전법회관을 개원했다.

봉선사는 5월 12일 전법회관에서 개원식과 함께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한 승려복지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원한 봉선사 전법회관은 2019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약 7년에 걸쳐 완공됐다. 총무국장 보관 스님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하층을 포함해 사찰음식 체험관, 회의실, 접견실, 체육 강당 등을 갖춘 다목적 포교 시설로 총사업비 93억520만원이 투입됐다.

호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식당이 아무리 좋아도 요리사의 손맛이 좋아야 손님이 모이듯 전법은 법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회관이 남양주를 넘어 전국의 불자들이 불법을 배우고 인연을 맺는 좋은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초대관장은 묘수 스님이 맡게 됐다. 묘수 스님은 "추운 겨울에도 홀로 회관을 살피던 관리팀장의 모습에 감동해 이곳을 지키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유능한 스님이 오실 때까지 큰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봉선사가 도심 전법포교도량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개원식에 이어 진행된 승려복지모금 행사에서는 교구 스님들의 노후와 수행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공유됐다. 복지국장 현강 스님은 수행연금 지급 대상을 119명으로 조정하고 운영 방안을 개선했음을 밝혔다.

호산 스님은 이날 승려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다.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1000만원, 용문사 3000만원, 불암사 3000만원, 수곡사 3000만원 등 교구 내 사찰과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날 약정된 총 기금은 3억7900만원에 달한다.

호산 스님은 "주지 스님들이 지금은 연금을 주는 대상이지만 언젠가 소임을 내려놓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것"이라며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조계종 사노위, 5·18 정신 계승 다짐

5월 15일, 서울 법련사서 추모재
진상규명 · 민주주의 수호 발원



1980년 5월 18일, 군부의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5월 15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제46주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하며 온전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기원했다.

사노위원 한수 스님은 "아직도 80년 광주를 폄훼·모독하는 사람이 많고, 광주항쟁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추모재가 광주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을 때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며 "5·18 정신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도선 김동수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광주항쟁은 전두환의 폭력이 시작된 5월 18일뿐만 아니라, 끝까지 거리에 남아 민주화를 외친 5월 27일까지 포함된다"며 "광주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조 실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 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